

2021년 6월 2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업통상과 과 장 양지연(044-201-2051), 사무관 정현주(2052) / 제공일: 6월 18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,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(FAO) 총회 참석 - 우리나라는 '89년 이후 12회 연속 이사국으로 진출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 화상으로 개최된 총회에서 194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여, '농식품 시스템 전환-전략에서 행동까지'를 주제로 기후위기,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과 행동을 촉구
- ◆ 우리나라는 식량안보, 농식품시스템 전반의 회복력 창출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,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 결과를 공유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6월 14일부터 5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2차 국제연합(UN) 식량농업기구(FAO) 총회에 참석하였다.

○ FAO 총회*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, 2년마다 개최된다.

* 홀수년도는 정기총회, 짝수년도는 지역총회 개최

○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사상 최초로 화상 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, 119개국 각료급 인사 등을 포함하여 1,300여 명이 참석하였다.

- 우리나라는 농식품부, 외교부, 해수부, 산림청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고, 현장 투표로 진행된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은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대응하였다.
 - 회원국들은 '농식품 시스템 전환-전략에서 행동까지'를 주제로,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아인구 감소,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촉구하였다.
 - 취동위(屈冬玉) FAO 사무총장은, 미래의 농업은 과학, 혁신과 디지털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 FAO는 4대 개선(보다 나은 생산·영양·환경·삶)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과, 이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.
 - 유럽연합(EU)은 현재 추진 중인 그린딜, 생물다양성 전략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에 대한 유럽연합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하였다. 또한, FAO가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청하고,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의 역할도 강조하였다.
 - 미국은 이번 총회에서 기아종식과 식량안보 향상을 위한 논의가 G20,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사전 정상회의, 기후변화 당사국총회(COP 26)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고, 농업분야가 기후행동과 해결책을 이끌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*과 개도국에 대한 기후금융을 지원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.
- * 4월 기후정상회의 시 2005년 수준 대비 50~52%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

□ 이번 총회를 통해 지난 5월 이사회의 논의를 거친 식량농업 기구(FAO)의 중장기 로드맵 '2022~31년 전략적 프레임워크'와 '2022~23년 사업예산안' 등을 최종 승인하고, 각 지역별 총회와 세계식량안보위원회, 농업위원회, 상품문제위원회, 수산위원회, 산림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.

○ 또한, 7개 지역별로 구성된 49개 이사국 중, 우리나라, 중국, 일본, 미국,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올해와 내년 6월말 임기가 각각 만료*되는 총 37개 이사국을 새롭게 선출하였으며, 우리나라는 '89년 이후 연속 12회 이사국에 선출되었다.

* 이사국 임기는 3년으로 △총회 상정 안건 사전심의, △총회에서 위임된 업무 등을 수행하며, 우리나라는 '18.7~'21.6월까지 이사국으로 활동

○ 아울러, 이사회의 독립의장 임기도 종료('21.6.30.)됨에 따라 로마와 뉴욕에서 현장 투표를 통해 네덜란드 후보자(Hans Hoogeveen)가 총 166표 중 104표를 얻어 최종 선출되었다.

□ 한편,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, 식량안보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는 식량 자급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,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해 기술협력, 공적 개발원조(ODA)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.

○ 또한, 박 차관보는 지난 5월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P4G* 녹색 미래 정상회의와 식량·농업 세션 결과를 FAO 회원국들과 공유하였다.

*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(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, P4G)

□ 참고로, 제43차 총회는 2년 뒤인 2023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.

□ 설립목적

- 기아, 식량불안 및 영양불량 퇴치, 빈곤경감, 자연자원(토지, 물, 공기, 기후, 유전자원)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

□ 기구 개요

※ 농림·수산·식품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기구

- (설립연혁) 정식발족('45.10.16) 및 최초의 UN상설전문기구('46.12.14)
 - (회원국) 194개국, 1개 회원기구(EU), 2개 준회원국
 - (소재지) 이탈리아 로마
 - (인원) 본부 및 지역사무소 등에 총 3,193명 근무('20.3. 정규직 기준)
 - (조직) 본부, 지역사무소(5), 소지역 사무소(10), 국가사무소(133), 연락사무소(6), 협력연락사무소(7)
 - (회의체) 총회·지역총회, 이사회, 산하위원회(8), 산하기구·보조기구* 등
- *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(CGRFA), 국제식물보호협약(IPPC), FAO/WHO합동CODEX 위원회(CAC), 아시아태평양식물보호위원회(APPPC) 등

□ 우리나라 참여 현황

- (가입) 제5차 총회시 가입('49.11.25, 워싱턴)
- (이사국 진출) '89~'24년(최근 연속 12회)
- (의무분담금) 연간 약 130억원 수준('21년 기준 194개 회원국 중 11위)
- (협력연락사무소 개소) 설립 협정 조약체결('19.3), 개소식('21.4, 서울)

붙임 2

영상회의 사진



FAO 총회 화상회의 장면(출처: FAO 홈페이지)



우리나라 수석대표 기조연설(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)